GYEONGGI CULTURE AND ART EDUCATION SCHOOL

경기 시민 예술 학교

2022
결과자료집

GYEONGGI CAMPUS

UIJEONGBU CAMPUS

ANYANG CAMPUS

HANAM CAMPUS

OSAN CAMPUS

SUWON CAMPUS

SEONGNAM CAMUPS

GURI CAMPUS

목차

운영기관 소개

경기문화재단 소개 06
예술교육팀 소개 07

사업 소개

사업 개요 10
사업 일정 11
네트워킹 및 결과공유회 12

경기캠퍼스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16
문장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 20
기초협력사업 연계 릴레이캠퍼스 24
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사업 27

참여 캠퍼스 소개

구리캠퍼스

캠퍼스 및 프로그램 소개 32
프로그램 후기 34
강사 인터뷰 38

성남캠퍼스

캠퍼스 및 프로그램 소개 44
프로그램 후기 46
강사 인터뷰 52

수원캠퍼스

캠퍼스 및 프로그램 소개 58
프로그램 후기 60
강사 인터뷰 64

안양캠퍼스

캠퍼스 및 프로그램 소개 70
프로그램 후기 72
강사 인터뷰 76

오산캠퍼스

캠퍼스 및 프로그램 소개 82
프로그램 후기 84
강사 인터뷰 88

의정부캠퍼스

캠퍼스 및 프로그램 소개 94
프로그램 후기 98
강사 인터뷰 102

하남캠퍼스

캠퍼스 및 프로그램 소개 108
프로그램 후기 112
강사 인터뷰 116

운영기관 소개

| 경기문화재단 소개 |

| 예술교육팀 소개 |

GYEONGGI CULTURE AND ART EDUCATION SCHOOL

| 경기문화재단 소개 |

문화로 가꾸는 살기좋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플랫폼 만들기' 라는 꿈과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지원을 확대하는 일, 문화교류를 넓혀가는 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일 등 문화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자원의 발굴에 힘쓰며,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그 역량을 굳게 다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체험형 참여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고,
6개의 뮤지엄에서는 경기문화예술의 전통과 현재,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시기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좁혀
문화복지를 확산하는 일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문화에는 교육적인 체험을 넘어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쉼 자체가 문화여야 하고, 예술은 그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예술로 쉴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편안하게 즐기는 빅데이터와 스마트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삶!'
앞으로도 경기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거기에는 젊은 스물다섯살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경기도를 아우르고 대한민국, 세계와 함께할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 | (우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www.ggcf.kr

| 예술교육팀 소개 |

예술로 더 가까이!

예술교육팀은 예술을 통한 교육, 경험하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2019년 4월 신설된 예술교육팀은 경기형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 그리고 지역 거점형 시민예술학교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담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증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교육팀은 201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 위탁한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등 지역 연계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매개자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네트워크 구축, 비평 웹진 발간 등의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교육본부 예술교육팀 | (우 11775)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15 3층

사업 소개

| 사업 개요 |

| 사업 일정 |

| 네트워킹 및 결과공유회 |

GYEONGGI CULTURE AND ART EDUCATION SCHOOL

| 사업 소개 |

사업개요

경기시민예술학교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기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경기도 내 여러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는 공모와 기획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캠퍼스를 포함한 도내 8개의 캠퍼스를 운영하여, 더 많은 경기도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면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경기도민이라면 어디서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였습니다.

사업명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기간
2022년 4월~12월

교육대상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사업내용

| 기초협력사업
- 도내 기초문화재단 대상으로 공모 진행
- 7개 지역 선정 및 지역별 시민예술학교 캠퍼스 운영
  - 구리캠퍼스, 성남캠퍼스, 수원캠퍼스, 안양캠퍼스, 오산캠퍼스, 의정부캠퍼스, 하남캠퍼스
-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 연재

| 경기캠퍼스
-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 문장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
- 기초협력사업 연계 릴레이캠퍼스
- 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사업

| 사업 일정 |

<table>
<tr><th></th><th>기초협력사업</th><th>경기캠퍼스</th></tr>
<tr><td>1월</td><td colspan="2">경기시민예술학교 추진계획수립</td></tr>
<tr><td>2월</td><td>기초협력사업 공모 공고</td><td></td></tr>
<tr><td>3월</td><td>기초협력사업 공모 심의</td><td></td></tr>
<tr><td>4월</td><td>기초협력사업 공모 선정 및 교부설명회</td><td>〈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기초반 1기 진행(4~6월)</td></tr>
<tr><td>5월</td><td>교부 및 사업 운영(5~11월)</td><td></td></tr>
<tr><td>6월</td><td></td><td></td></tr>
<tr><td>7월</td><td>기초협력사업 담당자 네트워킹(1차)</td><td>〈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기초반 2기 진행(7~9월)</td></tr>
<tr><td>8월</td><td colspan="2">릴레이캠퍼스 진행(8~11월)
시민봄봄 연재(8~12월)</td></tr>
<tr><td>9월</td><td>기초협력사업 담당자 네트워킹(2차)</td><td>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 진행(9~12월)</td></tr>
<tr><td>10월</td><td></td><td>〈문장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 진행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심화반 1기 진행(10~12월)</td></tr>
<tr><td>11월</td><td>기초협력사업 담당자 네트워킹(3차)</td><td></td></tr>
<tr><td>12월</td><td colspan="2">경기시민예술학교 결과공유회
프로그램 종료 및 정산</td></tr>
</table>

| 네트워킹 및 결과공유회 |

네트워킹(1차)

일자	6월 8일(수)
장소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참여자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담당자 및 경기문화재단
내용	경기시민예술학교 캠퍼스별 사업 공유 및 릴레이캠퍼스 주제 논의

네트워킹(2차)

일자	9월 5일(월)
장소	구리아트홀
참여자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담당자 및 경기문화재단, 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진
내용	경기시민예술학교 캠퍼스별 사업 현황 공유 및 고민 나누기

네트워킹(3차)

일자	11월 8일(화)
장소	수원 복합문화공간 111CM
참여자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담당자 및 경기문화재단, 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진
내용	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 경과 공유 및 캠퍼스별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결과공유회

일자	12월 13일(화)
장소	안양 평촌아트홀
참여자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담당자 및 경기문화재단, 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진
내용	경기시민예술학교 캠퍼스별 사업 결과 및 연구 경과 공유

| 경기캠퍼스 |

캠퍼스 색상 [노랑]

경기캠퍼스의 색상은 노랑입니다. 노랑은 봄날의 따스한 햇볕을 떠올리게 합니다.
봄의 햇볕은 우리의 삶을 온화하게 비추고 생명들이 움트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기캠퍼스는 노랑이 가진 온화함과 생명력처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소양을 싱그럽게 싹 틔우고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경기캠퍼스는 시민들이 자기표현의 주인이 되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화시민권'을 보장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기반의 문화예술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올해 경기캠퍼스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더 많은 경기도민을 만나고 함께하는 캠퍼스들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캠퍼스 담당

곽지효 주임, 이다은 담당(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은 경기문화재단이 심산스쿨과 함께 운영하는 성인 대상 비대면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심산 작가는 현재 심산스쿨 대표로서, 한겨레문화센터 시나리오작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등에서 20년 이상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하며 1,500 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시나리오 교육 전문가입니다.
시나리오 창작과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온라인 수업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기초반 1기 : 4월 5일(화) ~ 6월 7일(화), 매주 화요일
기초반 2기 : 7월 5일(화) ~ 9월 6일(화), 매주 화요일
심화반 1기 : 10월 4일(화) ~ 12월 6일(화), 매주 화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기수별 10회차(총 30회차)

교육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교육방법 온라인(ZOOM)

강사진 심산(심산스쿨 대표)

교육내용

[기초반]
기수별 30명 모집
자기소개서, 습작 등 신청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수강생 선정
영화 시나리오 창작 및 스토리텔링 기초 이론 교육 진행

[심화반]
기초반 수강생 중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모든 과제물을 제출한 수료자만 신청 가능
영화 시나리오 창작 및 스토리텔링 심화 이론 교육 및 시나리오 합평 진행

기초반 세부과정		심화반 세부과정	
일정	주제	일정	주제
4월 5일(화) 7월 5일(화)	스토리텔링의 역사와 시나리오	10월 4일(화)	내면의 외면화라는 과제
4월 12일(화) 7월 12일(화)	극작법과 시나리오의 양대축	10월 11일(화)	내면의 외면화를 위한 다양한 극작술
4월 19일(화) 7월 19일(화)	플롯과 캐릭터의 변주	10월 18일(화)	객관적 드라마와 주관적 드라마
4월 26일(화) 7월 26일(화)	감정이입이란 무엇인가	10월 25일(화)	영화와 시간의 문제
5월 3일(화) 8월 2일(화)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인가	11월 1일(화)	장면전환에 대하여
5월 10일(화) 8월 9일(화)	3장 구조는 여전히 유효한가?	11월 8일(화)	불확실성의 파워에 대하여
5월 17일(화) 8월 16일(화)	스토리의 세계는 어떻게 창조하는가?	11월 15일(화)	설명할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5월 24일(화) 8월 23일(화)	주인공과 적대자와 갈등	11월 22일(화)	아이러니란 무엇인가
5월 31일(화) 8월 30일(화)	대사에 대하여	11월 29일(화)	영화는 플롯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6월 7일(화) 9월 6일(화)	시나리오 집필과정의 실전 로드맵	12월 6일(화)	시나리오 집필과정의 실전 로드맵

|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강의 후기 |

심산(작가, 심산스쿨 대표)

2022년 12월을 끝으로 경기시민예술학교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20년 가을에 첫 번째 워크숍을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이래 무려 8개의 클래스를 이끌어온 대장정을 마무리하자니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한다. 8개의 클래스 중 5개는 기초반이었고, 3개는 심화반이었다. 그동안 웃고 떠들며 힘겹지만 즐거웠던 워크숍을 함께 해온 수강생들의 얼굴들이 한분 한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기초반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하여 30명의 수강생을 선발했다. 이들 중 핵심과제의 제출 등 일정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을 추려내어 다시 심화반을 개설했다. 심화반의 수강생 수는 대략 15명 안팎이었다. 2021년 1월에 개강한 두 번째 클래스부터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좋은 효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확연한 장점은 물론 시간의 절약과 공간의 확장이다. 강사나 수강생이나 모두 강의실로 오가며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수강생들도 자유롭게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온라인 강의만이 보장해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 넓은 경기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아우를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저 멀리 독일의 베를린이나 미국의 텍사스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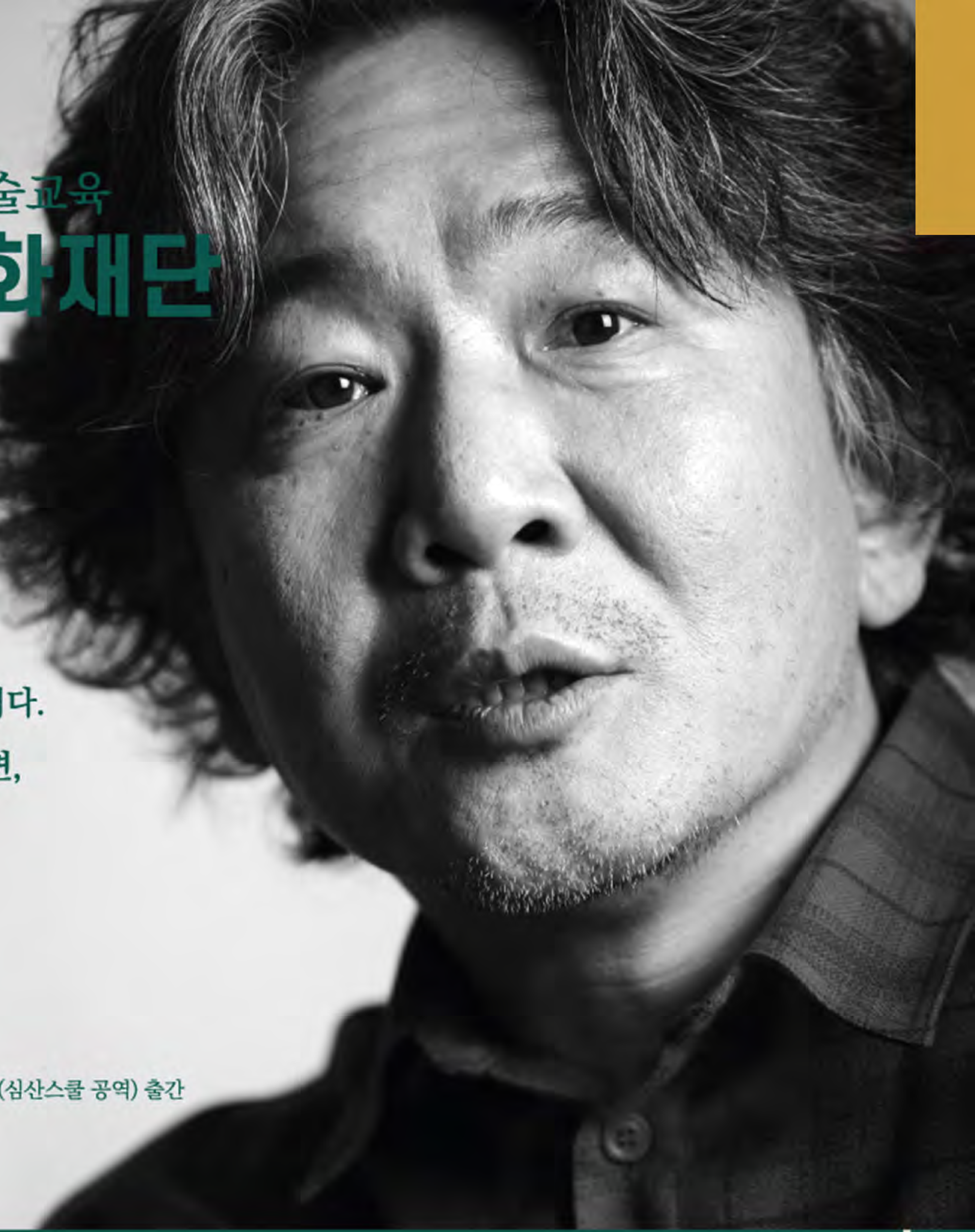
워크숍이 지속되면서 강사의 강의방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본래 심산스쿨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20주간 계속되는 워크숍을 진행해왔는데, 이것을 온라인에서 10주 안에 일단락지으려 하다 보니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더 많이 가르쳐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하면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제야 보다 능숙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워크숍 진행방식을 터득해내었는데 더 이상 워크숍을 진행할 수 없게 되다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2022년 10월-12월에 진행한 심화반의 수강생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적어둔다. 기초반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고 빡센 과정이었고, 매주 제출해야만 되는 과제만 해도 수행해내기가 버거웠을 텐데, 모두들 놀라운 열정과 성실함으로 충실히 따라주어 강사에게 보람과 함께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들과 함께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내심 아쉬움이 크다. 이들 모두의 건필과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으로 이토록 소중한 시간을 흔쾌히 마련해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시민예술학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분들은 워크숍이 진행되는 내내 매우 세심한 배려와 헌신적인 뒷받침을 해주셨다. 강사 역시 이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덕분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비대면 예술교육

심산스쿨X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시나리오 전문교육을 진행합니다.

백상예술대상 각본상 수상에 빛나는
시나리오 전문교육의 대가 심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온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심산 이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시나리오 [맨발에서 벤츠까지], [비트], [태양은 없다], [비단구두] 영화화
* 백상예술대상 각본상 수상
작법서 [시나리오 가이드](역서),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 [시나리오 마스터](심산스쿨 공역) 출간
심산 시나리오 워크숍 개설(한겨레문화센터 시나리오작가학교, 1998)
심산스쿨 설립 및 대표강사(2005~현재)

심산스쿨×경기문화재단

심산스쿨 시나리오 워크숍 기초반 1기

운영기간
2022년 4월 5일 ~ 6월 7일, 매주 화요일

진행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2시간

운영방식
온라인 수업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활용)

모집인원
30명, 참여접수를 받아 수강생 선발

수강료
10만원 (수업 교재 포함, 선발 후 입금 진행)

참여신청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f.kr)에서 가능

접수기간
2022년 3월 10일(목) ~ 3월 23일(수)

세부과정

1회차	4월 5일(화)	**스토리텔링의 역사와 시나리오**
2회차	4월 12일(화)	**극작법과 시나리오의 양대축**
3회차	4월 19일(화)	**플롯과 캐릭터의 변주**
4회차	4월 26일(화)	**감정이입이란 무엇인가**
5회차	5월 3일(화)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인가**
6회차	5월 10일(화)	**3장구조는 여전히 유효한가?**
7회차	5월 17일(화)	**스토리의 세계는 어떻게 창조하는가?**
8회차	5월 24일(화)	**주인공과 적대자와 갈등**
9회차	5월 31일(화)	**대사에 대하여**
10회차	6월 7일(화)	**시나리오 집필과정의 실전 로드맵**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시민 예술학교 2022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 경기문화재단

문장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

〈문장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는 경기문화재단이 언메이크랩과 함께 새롭게 시도한 성인 대상 디지털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GPT-3)과 함께 글쓰기를 실험해 보는 워크숍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기본적인 논리와 지형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인공지능과 함께 가능한 다른 글쓰기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실험해 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사를 뒤틀어 보고, 짧은 픽션과 시를 만들어 보며 인공지능을 워드 프로그램과 같은 글쓰기 도구를 넘어 '글쓰기 동무'로 만들어 볼 수 없을지 탐색해보는 오프라인 워크숍입니다.

교육기간 10월 1일(토) ~ 10월 29일(토), 매주 토요일

시간/회차 10:00 ~ 13:00, 5회차

교육대상 인공지능과 창작에 관심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15명

교육방법 강연 및 워크숍, 발표, 토론

교육장소 경기문화예술교육랩(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강사진 언메이크랩(최빛나, 송수연), 김승범, 남현지

교육내용

자기소개서, 참여동기 등 신청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수강생 선정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GPT-3)을 활용한 글쓰기 워크숍 진행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 가능한 개인 노트북 지참

회차	일정	세부내용	진행자
1	10.1 (토)	**기계학습과 데이터셋** 〈문장 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 지금의 기술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 기술, 예술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상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몇 가지 개념과 주요한 구성물을 들여다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 사회의 지형을 탐색하고 기계학습과 데이터셋을 이해하기	언메이크랩
2	10.8 (토)	**서사 뒤틀기와 낭독** GPT-3를 처음 더듬어 가보는 탐구과정으로 참여자들은 질문과 응답을 통해 GPT-3의 상식을 검토해보거나 프롬프트의 개념을 익힙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의 페르소나를 전이해 보는 실험을 해봅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의 전개를 이 페르소나로 뒤틀어 보고 그것을 대본 삼아 낭독해 봅니다. 〈나의 페르소나를 삽입해 익숙한 소설의 결말을 바꾸고 그 대사를 낭독하기〉	언메이크랩
3	10.15 (토)	**메타적 쓰기의 도구** 처음에는 경이롭던 글 쓰는 인공지능이 말하는 앵무새 정도의 신기함으로 익숙해질 즈음, 이 새로운 쓰기의 도구를 우리에겐 익숙한 쓰기 도구(워드프로세서/스프레드시트/프레젠테이션)의 옆에 두는 실험을 해봅니다. '쓰기에 대해 쓰기', 즉 메타적 쓰기가 글 쓰는 환경에 침투한다면 우리는 어떤 확장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쓰기 소프트웨어를 GPT-3와 함께 시적 쓰기의 환경으로 만들기〉	김승범
4	10.22 (토)	**문학/기계 다시 쓰기** 시를 쓰는 행위는 문장생성기와 유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문학 장르와 내가 서로에게 개입하는 과정을 경험해 봅니다. GPT-3로 직접 시와 미니픽션을 생성하고 독자이자 작가로서 문학적 글쓰기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시적인 것의 모호함과 운동성으로 인공지능과 시 사이에 개입하기 〉	남현지
5	10.29 (토)	**재잘거리는 기계들 : 인공지능과 글쓰기 경험** 참여자들이 작업한 개별 글쓰기를 발표하고, 인공지능과의 글쓰기 과정에서 일어났던 상호작용, 한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회고합니다.	언메이크랩 (zoom 김승범, 남현지)

| 문장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 강의 후기 |

언메이크랩

경기시민예술학교에서 운영한 〈문장채굴자 :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는 다양한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프롬프트(prompt) 기반의 이미지 및 언어 모델 인공지능을 다룬 강연과 워크숍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지금의 기술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요 기술 의제가 사회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3 이용한 글쓰기를 5주간 탐색했다.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챗봇 만들기부터 기사 작성,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쓰기 실험이 가능하다. GPT-3와 같은 프롬프트 기반의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라는 지시문을 통해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블랙박스를 두드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기본적인 탐색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감각을 지도 삼아 여러 가지 방식의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에 인풋(input)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보간(interpolation)을 결과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기계적이거나 통계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의외성과 잠재성을 가진 인공지능인 만큼, 5주간 이어진 긴 여정의 워크숍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참여자 자신의 필요에 맞게 거대언어모델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구성하며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자들은 시와 미니 픽션을 쓰며 이 과정을 탐색하였지만, 그 결과물이 새롭거나 놀랍다고 하기엔 한계가 많았다.

하지만 결과물보다 중요한 것은 글쓰기와 도구의 관점에서 미래의 쓰기 도구를 새롭게 상상하는 일이었다. 거대언어모델의 속성을 탐색하며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과 예술, 교육, 그리고 창작의 영역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창의적이고 상호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깊이 있는 질문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인간의 창의성과 지능에 대한 질문, 인공지능 생성물이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일자리 문제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질문도 더하면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자동화된 창작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

| 기초협력사업 연계 릴레이캠퍼스 |

릴레이캠퍼스는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의 7개 캠퍼스와 협력하여 '( ) 속 예술 : 모든 것 속에서 예술을 찾다.'라는 공통의 주제로 캠퍼스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협력기관 구리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오산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협력운영 협동조합 미래

[구리캠퍼스] (잎사귀) 속 예술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내용** 도시 속 식물을 관찰하고 보태니컬 아트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
- **일시** 8월 24일(수), 8월 27일(토), 8월 31일(수) / 09:00 ~ 12:00, 3회차
- **장소** 이문안호수공원, 구리아트홀 강의실3
- **강사진** 지미연

[성남캠퍼스] (일상) 속 예술 : 위트앤시니컬_성남詩:한여름밤, 우리 같이-시 낭독 모임

- **내용** 여름 밤, 함께 시를 낭독하며 삶을 감각하고 느끼는 프로그램
- **일시** 8월 23일(화), 8월 24일(수) / 19:30 ~ 21:30, 2회차
- **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1층 이미지랩
- **강사진** 유희경, 김복희, 서혜윤(연주자)

[수원캠퍼스] (기억) 속 예술 : 이야기로 엮는 교실

- **내용** 편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프로그램
- **일시** 11월 24일(목) / 19:00 ~ 21:00
- **장소** 복합문화공간 111CM
- **강사진** 강민아, 안성경, 윤영욱, 이희은

[안양캠퍼스] (문학) 속 예술 : 소설로 만나는 문학세계

- **내용** 문학 속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
- **일시** 8월 31일(수) / 16:00 ~ 17:00
- **장소** 평촌아트홀 커플데이 아트림점
- **강사진** 허희(문학평론가), 엄주빈(연주자)

[오산캠퍼스] (오산설화) 속 예술 : 창작 인큐베이팅 뮤지컬 '거믄슬이와 고달장군' 스케치

- **내용** 오산의 역사와 지명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 **일시** 10월 6일(목) / 15:00 ~ 18:00
- **장소** 오산문화재단 다목적실
- **강사진** 박봉곤, 곽유림

[의정부캠퍼스] (비건) 속 예술 : 문화예술을 통해 알아가는 비건 라이프

- **내용** 비건 라이프를 이해하고 환경을 위해 실천해보는 모임 프로그램
- **일시** 9월 17일(토), 9월 24일(토), 10월 8일(토), 10월 15일(토) / 15:00 ~ 18:00, 4회차
- **장소** 의정부아트캠프 민트
- **강사진** 불복종먼지들(김민지, 김수지, 박예은)

[하남캠퍼스] (치유) 속 예술 : 흙으로 만나는 치유

- **내용** 흙을 만지고 나누며 내면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 **일시** 10월 4일(화), 10월 11일(화) / 10:30 ~ 12:30, 2회차
- **장소** 하남문화재단 강의실
- **강사진** 유승현, 어혜경(보조)

| 경기시민예술학교 연구사업 |

2019년 시작하여 2022년 4년째 운영 중인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시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예술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지역별 캠퍼스 담당자와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연구기간 9월 ~ 12월

연구배경 경기시민예술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예술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대두

연구목적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경기시민예술학교의 방향성 모색

연구범위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선정기관 및 캠퍼스별 운영 프로그램

- **| 공간적 범위** 경기시민예술학교 운영 지역
- **| 시간적 범위**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운영 기간(2019년~2022년)
- **| 내용적 범위** 2019~2022년간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내 운영된 기획 또는 기초협력사업

연구내용 2019~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성인 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2022년 참여 캠퍼스별 현장 방문 및 캠퍼스 담당자 인터뷰 진행
2022년 참여 캠퍼스 담당자 간 네트워킹 및 라운드테이블 참여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연구단체 엠버스어스(하정아, 송경희, 유유미, 백강현)

| 참여캠퍼스 소개 |

의정부캠퍼스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아트캠프
경기캠퍼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랩(수원 인계동)
온라인
구리캠퍼스
구리문화재단
구리아트홀
하남캠퍼스
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강의실
생활문화센터하다
미사도서관
안양캠퍼스
안양문화예술재단
평촌아트홀
성남캠퍼스
성남문화재단
성남꿈꾸는예술터
수원캠퍼스
수원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111CM
오산캠퍼스
오산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다목적실

| 구리캠퍼스 |

캠퍼스 색상 [하늘]

지난 몇 년간 많은 시민분들이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울한 블루가 아닌 '맑은 하늘'과 같은 블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늘색을 선택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예쁜 6~8월 동안 경기시민예술학교 구리캠퍼스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구리캠퍼스의 컨셉은 〈또 다른 나를 만나다〉입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기쁨만큼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설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연극, 문학,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신과 더욱 가까워지고 나아가 타인과 문화예술로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캠퍼스 담당

신창희 차장, 한지현 주임(구리문화재단 문화진흥팀)

연극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구리캠퍼스 〈예술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첫 번째 시리즈, 「연극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단편 희곡 낭독, 장면 연습, 즉흥 연기 등 연극 수업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나볼 수 있는 연극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6월 3일(금) ~ 6월 29일(수), 매주 수, 금요일
시간/회차 10:00 ~ 12:00, 8회차
교육장소 구리아트홀 복합연습실
강사진 박재현(주), 오지연(보조)

문학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구리캠퍼스 〈예술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두 번째 시리즈, 「문학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문학 인물 탐구, 에세이 작성 등 문학 수업을 통해 작가가 되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6월 30일(목) ~ 7월 25일(월), 매주 월, 목요일
시간/회차 16:00 ~ 18:00, 8회차
교육장소 구리아트홀 강의실1
강사진 최영동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구리캠퍼스 〈예술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세 번째 시리즈,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그림 그리기, 스토리보드 기획 등 그림 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8월 2일(화) ~ 8월 25일(목), 매주 화, 목요일
시간/회차 10:00 ~ 12:00, 8회차
교육장소 구리아트홀 강의실2
강사진 김규희(주), 정진우(보조)

내 손 안에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관심 갖는 시민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미술·문학·국악·철학·연극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 콘텐츠 25건을 제작합니다. 구리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5월 2일(월) ~ 10월 17일(월), 매주 월요일, 25회차
게시장소 구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강사진 김채린(미술), 강해성(무용), 이다운(음악), 전애현(국악), 박창선(문화재)

오늘 우리는 모두 '작가'가 된다

메신저, SNS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 글을 씁니다. 그런데 '책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문학적인 글쓰기를 소개하고 한 권의 책까지 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구리캠퍼스의 〈문학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입니다.

여느 학교 수업처럼 과제 체크로 시작하는 문학 수업.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글의 기승전결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등 책을 쓰기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한 글을 쓰고 카페에 업로드하죠. 다음 수업 시간이 되면 서로의 글을 읽고 합평과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입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수강생들이지만, '내 책'에 대한 의욕은 남달랐습니다. 최영동 강사의 안내에 따라 문학적인 인물을 구축하고 에피소드를 배치하면서, 각자 3~4개의 작품을 완성해냈어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부터 픽션, 짧은 시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작품들의 향연에 책에 실릴 작품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작품을 읽고 난 후, 최영동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수강생 모두의 문학 언어를 깨우기 위해서죠.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실제 겪었던 에피소드는 어땠는지 등 마음에서 우러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여러 의견과 강사의 조언을 받은 작품들은 일부 수정 후 '나만의 책'에 실렸습니다.

수강생들은 8회에 걸친 문학 수업을 '추억 속 한 장면을 나만의 문학적인 언어로 담아낸 보석 같은 수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사회화된 평소의 모습과 달리 내 안에 살아있는 진짜 모습을 깨울 수 있었다고 말이죠.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구리캠퍼스의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그림책이 무엇인지, 어떤 시점과 기법으로 표현하면 좋은지,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그림책에 대한 소개와 '이야기', '개념', '정보' 등 여러 종류의 그림책 중 나에게 맞는 그림책을 찾는 자가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내가 만들 그림책의 스토리보드와 벤치마킹할 그림책을 찾아보는 과제가 주어졌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중 시점 등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운 용어들도 그림 수업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림책은 시각적인 요소로 많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만큼 그림의 시점과 앵글, 샷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론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는 진짜 그림책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강생들이 가져온 그림책, 귀여운 고양이들이 등장하는 김규희 강사의 그림책 등 실제 출판된 그림책과 더미북(목업)의 비교도 흥미진진합니다.

수강생들은 자전거, 거북이, 아기, 교육 등 실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스토리보드에 담아냈습니다. 〈문학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수업의 마음 계단 시와 연계되는 구성, 아기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사물 등 수강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린다면 점묘법, 그리핑, 콜라주, 마블링 등 수많은 미술 기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 등 재료로 직접 표현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수업도 진행되었답니다. 물론, 실제 작업할 때는 동양화나 아이패드 등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신만의 그림책인 더미북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후 공모전 출품이나 e북 등 출판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이 빠르게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학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

최영동 작가(강사)

〈문학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문학이라는 큰 덩어리를 만나보고 자기만의 언어를 깨우는 수업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화된 일상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아가 존재하죠.

문학적인 순간은 일상이 아니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장면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이 이야기와 글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인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에세이와 수필, 시를 써 보고 우리가 만난 언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권의 작품집으로 묶어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매체의 속도가 빨라지며 과거와 비교해 문학의 자리가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만의 글쓰기'를 고민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문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더 멋진 도시가 될 겁니다.

|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

김규희 작가(강사)

나만의 그림책인 '더미북'을 만드는 것이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수업의 목표입니다. 더미북은 출판사나 공모전에 내기 전에 거치는 목업을 의미하는데요. 강의 8회에 걸쳐 하드 커버로 목업 작업을 진행합니다. 강사인 저도 수강생 여러분과 템포를 맞추기 위해 과제를 같이 수행하고 한 권의 그림책을 완성했어요.

글쓰기 동아리 회원,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분 등 수강생의 관심사나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대부분은 그림에 관심은 있지만 자신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타공인 전문가라도 자기 그림에는 자신이 없게 마련이거든요.

그림 실력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는 활동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모아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림책이니까요.

그림책은 언제든 자신의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취미생활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수강생 여러분이 작업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거나 그림책을 만들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등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하는 걸 많이 그려 보세요.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버지니아
레 인
찰 스

| 성남캠퍼스 |

캠퍼스 색상 [초록]

시민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태'입니다. 자연만이 아니라 도시의 삶, 시민의 일상과 마음까지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삶터의 개념으로서 생태를 생각합니다. 이에 녹색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새로이 움트는 에너지로 성남캠퍼스를 상징하고자 합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성남캠퍼스는 〈일상 속의 예술〉을 목표합니다. 예술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지향합니다. 도시의 역사,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의 행복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술교육을 추구합니다. 시민교육을 비롯하여 매개자 교육, 문화예술교육활동가 교육, 공동체 학습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확산과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캠퍼스 담당

박은진 과장(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도시 명상 : 익숙하지만 낯선_영상일기

느슨하게 연결되는 명상을 실험합니다. 미디어 가이드와 지도를 참고하여 함께 탄천을 산책하고, 도시의 빈 공간에서 홀로 명상에 잠기며,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스마트폰 영상 촬영과 편집의 기본을 배우고,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나만의 영상일기를 제작합니다.

교육기간 6월 3일(금) ~ 6월 17일(금), 매주 금요일
*6월 4일(토) 16:00 ~ 21:00(*야외수업/2회 연속)
시간/회차 19:30 ~ 21:30, 5회차
교육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이미지랩, 탄천
강사진 윤용훈(주), 박소정(보조)

뮤직-컬러링 : 색으로 그리는 플레이리스트

세상의 다양한 음악을 풍요롭게 들어봅니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며 장르별 특성과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색채학을 활용해 음악을 색으로 시각화하여 나만의 음악-컬러 색상환을 제작합니다.

교육기간 1기 6월 8일(수) ~ 7월 6일(수), 매주 수요일 / 19:00 ~ 21:00, 5회차
2기 9월 14일(수) ~ 10월 12일(수), 매주 수요일 / 10:00 ~ 12:00, 5회차
교육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소리랩, 이미지랩
강사진 서혜윤

지금 여기의 그림자들 :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

목탄의 부드러운 어둠으로 드로잉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합니다. 과거, 도시의 삶을 이루는 유용한 자원이자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던 목탄이 가진 검고 부드러운 성질로, 오늘날 도시의 삶에서 마주치는 고민과 생각을 그려봅니다.

교육기간 8월 18일(목) ~ 11월 10일(목), 매주 목요일
시간/회차 19:00 ~ 22:00, 13회차
교육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강당, 미디어랩
강사진 김종민(주), 이재희(보조)

도시 레벨링 지도 :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도시에 대한 공공예술적 접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재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봅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인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교육기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매주 수요일
시간/회차 10:00 ~ 12:00, 7회차
교육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이미지랩
강사진 이계원(기획자), 박성진(아키비스트)

도시를 위한 수작(手作)

탄천을 걸으며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하천 생태와 식물에 대해 배우고, 한시적인 섬을 탐험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하천을 살펴보며 감각을 일깨우고 우리의 생태에 필요한 예술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교육기간 1기 9월 23일(금) / 10:00 ~ 12:00
2기 9월 30일(금) / 10:00 ~ 12:00
교육장소 탄천
강사진 손정은

위트앤시니컬 _성남詩 : 가을밤 시쓰기

시집 전문서점 위트앤시니컬의 대표, 유희경 시인과 함께 합니다. 인류의 문예 중 가장 오래된, 세상 쓸모없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괴롭힌, 시가 여태 남아있는 까닭을 생각해봅니다. 시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 시를 읽고 쓰고 낭독하는 사이, 내 것이되 내 것이 아닌 마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기간 10월 4일(화) ~ 10월 25일(화), 매주 화요일
시간/회차 19:00 ~ 21:30, 4회차
교육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이미지랩
강사진 유희경

성남 블렌드 : 나만의 커피 블렌딩 프로젝트

나의 도시를 커피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떤 맛과 향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다양한 원두를 맛보고 이야기하며 생각해 봅니다. 블렌드한 원두는 멋진 패키지에 담아 나와 이웃에게 선물합니다.

교육기간 1기(매개자) :
6월 8일(수), 6월 15일(수), 매주 수요일 / 14:00 ~ 17:00, 2회차
2기(매개자) :
7월 13일(수), 7월 20일(수), 매주 수요일 / 14:00 ~ 17:00, 2회차
3기(일반시민) :
10월 19일(수), 10월 26일(수), 매주 수요일 / 19:00 ~ 22:00, 2회차

교육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이미지랩
강사진 김희조(주), 이종현(보조)

[문화예술 교육활동가 대상 강좌] 수집가를 위한 연구

〈수집가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육활동가와 함께 도시를 생각하고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연구 과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기능 교육을 넘어서 지역과의 결합, 시민의식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기 바라는 성남캠퍼스의 취지에 공감하는 예술교육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 [Step 1] 도시 레벨링 지도 :
7월 2일(토) ~ 7월 30일(토) / 14:00 ~ 17:00, 5회차

[Step 2] 도시명상_익숙하지만 낯선_영상일기 :
8월 20일(토) ~ 9월 3일(토) / 15:00 ~ 18:00, 4회차
*8월 27일(토) 15:00 ~ 21:00(*야외수업/2회 연속)
성남엽서_좋아하는 것들의 그림지도 :
8월 20(토) ~ 9월 3일(토) / 10:00 ~ 13:00, 3회차
도시를 위한 수작(手作)_한시적인 섬 :
9월 2일(금) / 10:00 ~ 13:00

[Step 3] 수집가를 위한 연구 :
9월 13일(화) ~ 11월 1일(화) / 10:00 ~ 13:00, 8회차

교육장소 성남꿈꾸는예술터, 탄천 등
강사진 윤종준(특), 김현정(특), 홍경구(특), 김동현(특), 전지영(특),
윤용훈(주), 손정은(주), 이계원(기획자), 박성진(아키비스트)

목탄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애니메이션 만들기

성남캠퍼스의 〈지금 여기의 그림자들: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은 성남의 상징인 목탄(숯)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성남은 조선시대에 숯을 생산하고 보관했던 지역으로, 탄천 역시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수업의 제목인 '지금 여기의 그림자들'은 우리의 일상에 언제나 함께하는 생각, 일상,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먼저 시놉시스와 스토리보드를 제작한 후, 스토리보드에 맞춰 한 장면 한 장면을 목탄으로 드로잉해 애니메이션을 완성합니다. 4번째 시간에는 수강생들의 이야기가 영상물에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보드 첨삭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 첨삭이지만 모두가 함께 시놉시스, 스토리보드를 보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에피소드, 나 자신의 생각 등 수강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시놉시스와 스토리보드를 거치며 애니메이션이 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가 완성되었다면 다음은 목탄으로 각 장면을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대사를 녹음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영상 매체인 만큼,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지워내는 과정, 전체를 확대한 부분,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변화 등을 모두 작품에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특징이죠.

수업 후반에는 목탄을 직접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탄은 선과 면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지우개나 손으로 지워내서 빛이나 명암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구인데요. 이러한 특성이 계속 모이고 흩어지는 그림자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답니다.

목탄으로 선을 그어 보고 손가락과 지우개로 지워내는 등 목탄 드로잉의 기본기를 익힙니다. 실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게 될 내용도 스케치해 보며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 속 자연을 발견하는 산책, 함께하실래요?

성남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도시의 상징이기도 한 탄천. 2022년, 탄천의 물 흐름을 막고 있던 농업용 보들이 철거되며 탄천의 풍경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 철거와 장마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는 탄천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자연을 발견하는 수업이 바로 성남캠퍼스의 〈도시를 위한 수작〉인데요. 2기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두 번째 수업은 탄천 백궁교와 백현교, 하중도를 탐색하며 낯선 자연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를 위한 수작〉의 탄천 산책은 백궁교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백궁보가 철거된 이후 여울을 만들어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성남 환경운동연합의 손정은 강사와 함께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근한 까치와 까마귀부터 백로에 이르기까지, 미리 준비된 쌍안경을 활용해 탄천의 이웃들을 관찰합니다. 평소 탄천을 산책할 때는 앞만 보고 걷기 마련이지만, 이날만큼은 보이지 않던 도심 속 자연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튼튼한 크령이라는 뜻의 수크령과 강아지풀, 비슷해 보였던 억새와 갈대도 직접 관찰하며 그 차이를 알아나갑니다. 실제로 만져 보고 확대경인 루뻬를 활용해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연의 생존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답니다.

백궁교부터 백현교까지 1km 남짓한 산책로를 걸으며 탄천의 생태계를 관찰한 후에는 '한시적인 섬', 하중도로 이동했습니다.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하중도는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장마 이후 자연적인 복원이 진행되며 공사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큰 비가 내리거나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없는 '한시적인 섬'이기도 하죠.

하중도를 육지화하기 위해 쌓아 올린 흙, 생태교란종인 가시박꽃에서 꿀을 빠는 벌, 백현보가 사라진 자리는 지금까지 '늘 지나가는 탄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위한 수작〉에 참가하면서 탄천을 살아가는 생물과 무생물의 눈높이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백현교 아래에서 탄천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버드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발밑의 잡초, 인공적인 자연 등 참가자들의 독특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여기의 그림자들: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 |

김종민 겸임교수(강사)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민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그림자들〉이라는 타이틀로 수강생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는 곳,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이야기를 시놉시스와 스토리보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죠. 이미지화된 생각을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주재료가 바로 성남의 상징인 '목탄'입니다.

목탄은 종이에 달라붙지 않고 금방 가루가 되어 날아간다거나 살짝 지워내고 다시 덧그릴 수 있는 독특한 소재입니다. 목탄이 쌓이는 느낌으로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림자라고 하면 고민 같은 어두운 인상을 주지만 사실 그림자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즐겁거나 행복할 때, 나의 일상 이야기 모두 그림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술과 가까워지고 일상의 질문을 끌어내기도 쉬워집니다.

| 도시를 위한 수작 |

손정은 활동가(강사)

〈도시를 위한 수작〉은 자연 생태와 예술을 결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함께 걸었던 탄천의 백궁교와 백현교 구간에는 1km도 안 되는 간격으로 보가 두 개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동시에 철거되면서 탄천의 생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죠. 오늘 〈도시를 위한 수작〉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더 많은 분과 공유하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보가 철거된 이후 하중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자연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때로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잘 가꿔진 공원도 아름답지만, 여러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에 개입할 때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수업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하고 다른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예술성이니까요. 같은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lœːR]

| 수원캠퍼스 |

캠퍼스 색상 [연두]

연두는 새봄을 맞이하는 색입니다. '상상하는' 수원캠퍼스는 연두색 안에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원을 담았습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수원캠퍼스의 컨셉은 〈상상하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일상에서 어떤 상상을 떠올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성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캠퍼스는 익숙함 안에서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는 관점을 발견하고,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일상에 필요한 회복탄력성을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가기 위한 상상하기를 출발합니다. 수원캠퍼스의 예술 활동은 경험의 단순 축적이 아닌 변화하는 사유의 축적을 지향합니다. 수원캠퍼스의 〈상상하기〉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모험이며, 예술은 완결된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의 과정입니다.

캠퍼스 담당

박지원 차장(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머무는 교실 : 하루의 백스테이지

공예, 사진, 영상, 무용 분야의 문화예술교육가 4명과 함께 일상에 상상력을 더하고, 예술적 성취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참여자와 예술가가 함께 예술 활동의 주체적 활동을 도모하고, 다양한 예술을 일상 안에 나누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1기 6월 9일(목) ~ 8월 18일(목), 매주 목요일 / 19:00 ~ 21:00, 8회차
2기 9월 15일(목) ~ 11월 10일(목), 매주 목요일 / 19:00 ~ 21:00, 8회차
교육장소 복합문화공간 111CM
강사진 강민아(공예), 안성경(사진), 윤영욱(영상/기획), 이희은(무용)

생소한 학당 : 1+1+1CM, 한 치 앞에 대한 질문

기존의 관념과 다른 생각을 지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내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릴레이 강좌입니다. 일방향적인 사회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의 삶을 연결하는 특강으로 많은 질문과 생각을 이어가는 열린 토론형 강좌입니다.

교육기간 9월 6일(화) ~ 10월 11일(화), 매주 화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6회차
강사진 1회차: 박병상 박사(인천도시생태연구소)
2회차: 전호근 교수(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3회차: 김성원 소장(PlayAT-생활기술과놀이멋짓연구소)
4회차: 김규식 작가(사진작가)
5회차: 김아영 감독(애니메이션 감독)
6회차: 고영직 문학평론가(동네지식인)
교육장소 복합문화공간 111CM

[특강] 〈머무는 교실 : 하루의 백스테이지〉를 위한 백스테이지

형식화되고 관성화된 교육현장에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구프로그램입니다. 〈머무는 교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면서 발견되는 지점들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유의미한 사례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연극 장르를 바탕으로 예술에 대한 경험을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일상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교육기간 5월 11일(수), 5월 19일(목), 5월 25일(수), 8월 11일(목), 4회차
교육장소 복합문화공간 111CM
강사진 이준경(연극)

예술적 상상력 풀충전! 백스테이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인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머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업은 일반적인 예술 교실의 형식을 벗어나 세 그룹을 30분마다 이동하며 진행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은 만큼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무용 수업은 일상에서 찾은 움직임과 공간에 대한 상상으로 개개인의 안무를 구성합니다. 걷기, 식사하기, 앉아있기 등 반복되는 움직임과 일과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만의 안무'로 만드는 것이죠. 무용 수업은 개인의 움직임과 공간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며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신선하고 즐거웠다는 후기가 끊이지 않는 수업이랍니다.

양모 섬유를 바늘로 콕콕 찔러 형상을 완성하는 양모 펠트 공예는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가 높은 취미입니다. 양모 펠트 인형에 나의 개성과 일상, 이상향을 담아 보면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의 양모 펠트 수업에서는 '해가 뜨거나 졌을 때 나의 모습'을 양모 펠트 인형으로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 이상향을 테라리움으로 꾸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양모 펠트 공예를 하기에는 짧게 느껴지지만,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30분이라도 나 자신의 개성에 주목하고 예술로 승화하는 시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진 수업에서는 복합문화공간 '111CM'의 풍경을 색다른 시선으로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는 사진 수업을 통해 순간을 기록하고, 빛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라이트 페인팅'을 이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흑백사진 모드를 활용해 주변의 모습을 기록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칭 구도가 많은 111CM에서 빛과 그림자만으로 특별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죠.

이처럼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는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소한 학당: 1+1+1CM, 한 치 앞에 대한 질문(2회차) |

인간에 관한 아주 생소한 수업, 들어보실래요?

수원캠퍼스의 〈생소한 학당: 1+1+1CM, 한 치 앞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내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수업 "사람 하나, 시대 하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전을 통해 지금의 생각을 발견하는 느린 독서인' 전호근 교수는 조선 성리학을 연구하며 과거와 지금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왔는데요. 이번 〈생소한 학당〉에서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개성을 살펴보고, 수강생들이 미리 제출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인간, 맹자가 정의한 인간, 묵자가 정의한 인간 모두 조금씩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전호근 교수는 자신이 직접 만난 사람, 뉴스를 통해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측은지심(타인의 처지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설명하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덕책 속 이론들도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인문학 강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생소한 학당〉의 매력은 수강생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성에 있습니다. 〈생소한 학당〉은 수강 신청서부터 미리 강연에 대한 질문을 작성해야 하는 만큼,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식과 일상생활의 괴리,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삶을 살아가는 방법 등 다양한 질문에 전호근 교수는 새로운 질문과 힌트를 던집니다. 인생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수강생 모두가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저렇게 사느니 이렇게 죽겠다'고 의연한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에서도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인생은 결국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 가까운 사람들과 이번 강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생각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 |

윤영욱 작가(기획자/강사)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는 문화 예술의 고정된 형식을 깨뜨리기 위해 소비보다 생산 활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세 가지 예술 수업을 통해 일상의 순간에 상상력을 부여하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죠. 익숙하지 않은 형태를 어려워하는 분도 많지만, 일단 경험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수업 내내 머무는 순간이 없거든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이 제목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에서 들었던 생각을 여기에 30분 동안 머물면서 예술 활동으로 전환하는 수업이니까요.

30분이라는 시간은 각각의 수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짧지만, 일상이라는 무대를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집중력이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또,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강사와 수강생 모두가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생소한 학당: 1+1+1CM, 한 치 앞에 대한 질문 |

전호근 교수(강사)

세상에는 참 비슷비슷한 강의가 많습니다. 주례사처럼 일방적인 강의는 듣는 사람도 참여 없이 소비하고 끝이죠. 그래서 수업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소규모의 수강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생소한 학당〉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인간을 추상명사 '인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인간 군상을 획일화하면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유로움, 개성이 모두 사라져 버리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개인이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집단과 관계를 맺고 상생해 나가는 모습을 수업에서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소한 학당〉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보다 문을 열고 나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수업이 수강생 여러분이 '인간적인 삶'을 고민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양캠퍼스 |

캠퍼스 색상 [파랑]

젊고 역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스마트 도시 안양을 파랑색의 시원함과 열정으로 안양캠퍼스 만의 색깔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안양캠퍼스는 〈사람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에 대한 물음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감성을 계발시키는 사람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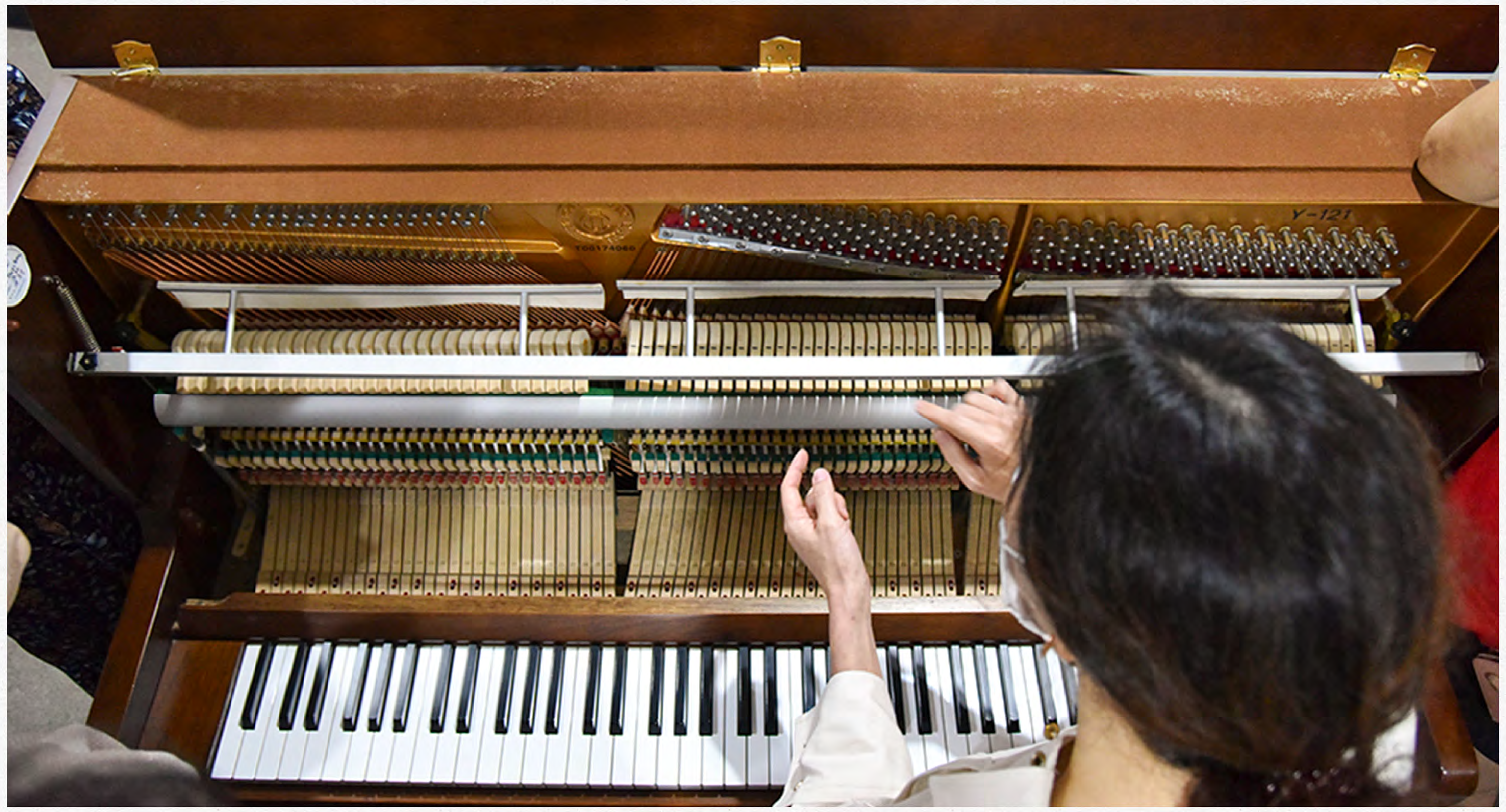
캠퍼스 담당

송권 차장, 박은지 주임(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부)

알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상식

긴 역사와 깊은 철학적 의미까지 담긴 클래식 음악은 초심자에게나 기존 감상자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어느 정도 조예가 깊어질 때까지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감상자들에게는 클래식에 대해 다시 흥미를 돋우고 기본을 다지는 기회를 그리고 새로운 예비 클래식 애호가들은 입문시킬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기간 7월 5일(화) ~ 9월 20일(화), 매주 화요일
시간/회차 13:00 ~ 16:00, 12회차
교육장소 평촌아트홀 감상교육실
강사진 김단비



두드림의 재발견! 신체의 숨겨진 보물

인류기원의 최초 악기는 타악기입니다. 친근하면서도 익숙한 타악기를 지친 시민들을 위해 두드림으로 일상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무뎌진 신체감각과 불규칙한 생활리듬을 두드림의 재발견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찾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기간 7월 7일(목) ~ 9월 22일(목), 매주 목요일
시간/회차 18:00 ~ 21:00, 12회차
교육장소 평촌아트홀 대연습실
강사진 방승주(주), 정한솔(보조), 나현범(보조)

클래식에 입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양캠퍼스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전체 12회차로 진행하는 〈알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상식〉은 '어디선가 들어본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 수업은 오후의 졸음을 확 깨우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등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악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수강생들의 마음을 클래식 공연장으로 이동시키기 충분하죠.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리기 쉬운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 등 오케스트라 악기와 배치를 익히며 클래식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미국식과 유럽식 오케스트라 편성이 어떻게 다른지, 규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나면 실제 공연이 더 즐거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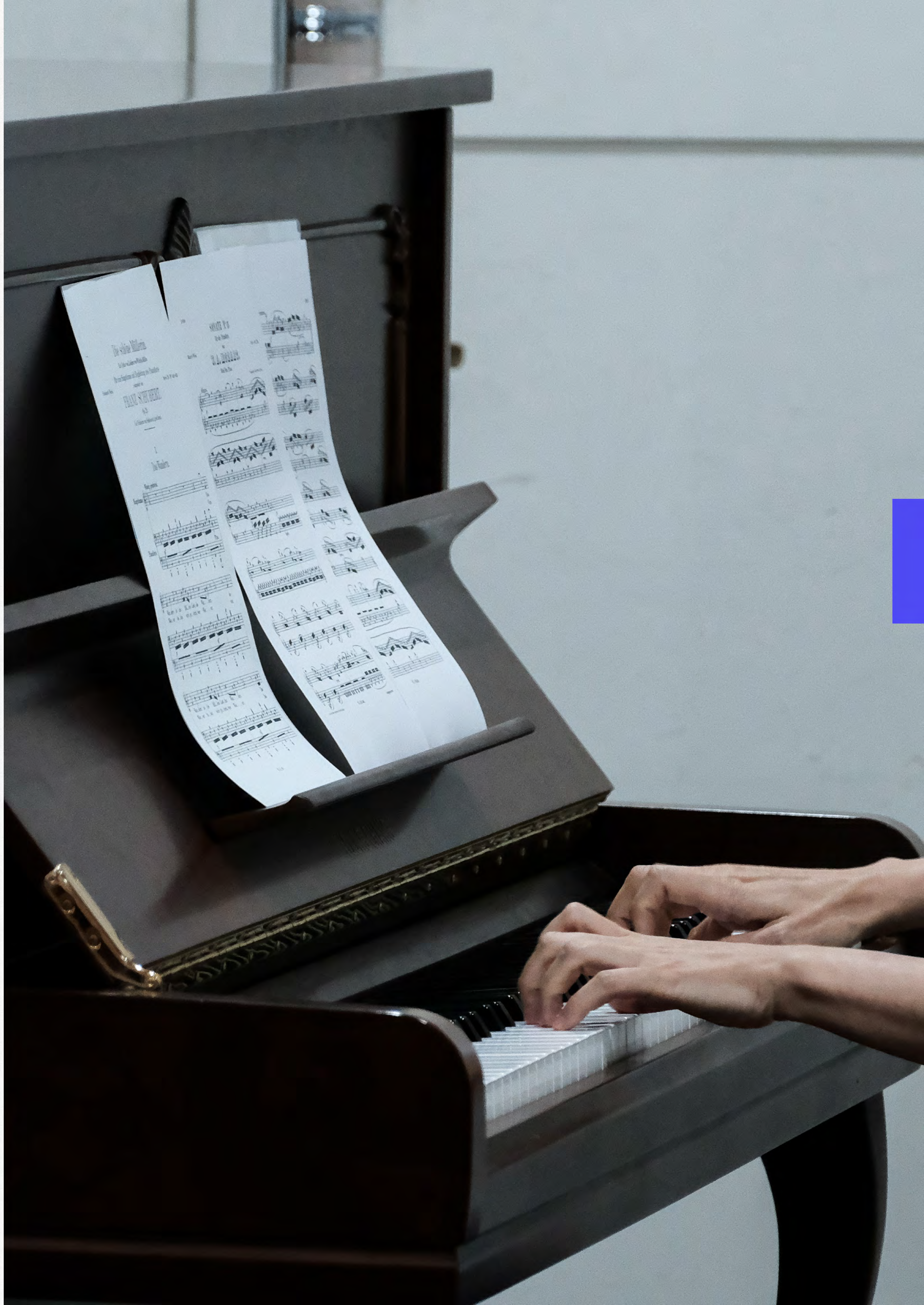
이날의 수업은 비슷하게 생긴 다양한 오케스트라 악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기만 다른 것 같은 현악기,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의 차이 등 이론을 배운 후에는 해당 악기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주어지죠.

여러 오케스트라 악기의 구성과 소리를 익힐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비올라 연주가 두드러지는 악곡 등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 방금 배운 이론도 마음속에 녹아듭니다.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의 소리를 감상한 후에는 감상교육실의 피아노를 실제로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건반이 현을 진동시키고, 또다시 현이 줄받침을 거쳐 향판을 진동시켜 공명하는 소리를 냅니다. 한 건반을 누를 때마다 수많은 부품이 동시에 움직이며 묵직한 소리를 생성하죠. 피아노 속 현과 댐퍼, 향판의 움직임을 눈으로 관찰하며 피아노라는 악기의 풍성한 매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클래식과 오케스트라, 악기와 친해진 수강생들은 자연스럽게 '나만의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를 만듭니다. 좋아하는 곡과 좋아하는 연주자, 좋아하는 악기를 찾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초보자들의 클래식 입문을 돕는 〈알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상식〉 수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드려라, 리듬의 문이 열릴 것이니!

평촌아트홀 지하 대연습실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정체는 바로 안양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두드림의 재발견! 신체의 숨겨진 보물~ 두드리면 유쾌해 진다〉 수업인데요.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부터 박치까지, 누구나 타악기를 통해 음악과 친해지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2회차에 걸친 수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두드림으로 시작됩니다. 끝부터 움직이고 두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자극되고, 신체의 리듬감이 되살아납니다.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고 두뇌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타악기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드럼, 젬베, 심벌즈 등 세계의 타악기를 접하면서 실제 악곡 연주에도 참여하게 되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음악 이론도 타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2마디와 4마디 메트로놈에 맞춰 본격적인 두드림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미 3차례 두드림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원래부터 한 팀이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난타북을 두드립니다. 악보를 보지 않아도 온몸으로 리듬을 타고, 질서정연하게 듣기 좋은 소리를 냅니다.

이날의 수업에는 '타악 체력 검정 테스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메트로놈에 맞춰 1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온몸으로 난타북을 연주했습니다. 어느 정도 리듬을 탄 후에는 친숙한 가요에 맞춰 난타북을 두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조건〉, 〈Bounce〉 등 듣기만 해도 온몸이 들썩이는 음악을 따라 두드리다 보면 어느새 손은 물론 발까지 들썩들썩 리듬을 타고 있었답니다.

3시간여 동안 내 몸부터 친숙한 악기, 처음 보는 세계의 민속 악기까지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수업. 비록 몸은 격렬한 운동을 한 것처럼 힘들지만 이미 흥을 알아버린 어깨와 발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악기를 두드리며 리듬감은 물론 활력까지 찾아주는 〈두드림의 재발견! 신체의 숨겨진 보물~ 두드리면 유쾌해 진다〉 수업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알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상식 |

김단비 연주가(강사)

클래식 수업 수강생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척 다양합니다. 음악을 듣고 지적인 교양을 쌓는 것은 물론, 음악을 통한 힐링이나 소통을 원하는 분도 많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통해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작곡가 1명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쉽고 다양한 클래식 상식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선곡할 때도 머리 아픈 곡보다는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곡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분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걸 무척 좋아하시는 만큼, 음악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늘 플레이 리스트도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수강생 여러분이 여러 음악가의 다양한 곡을 들으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클래식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두드림의 재발견! 신체의 숨겨진 보물~ 두드리면 유쾌해 진다 |

방승주 연주가(강사)

사람 중에는 흥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이 없으면 리듬감이 떨어져 박치가 되기 쉬운데요. 흥이 없는 사람도 타악기를 통해 리듬을 익히고 음악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음악 이론부터 악기를 두드리는 방법,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배운 것들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두드림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3시간 가까이 타악기를 두드리다 보면 손의 근력과 체력까지 길러집니다.

박치인 수강생부터 음악을 전공한 수강생까지 실력의 차이는 있지만, 난이도를 맞춰 다 같이 참여하는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흥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수강생의 경우 몸이 말을 안 듣기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박자감을 높일 수 있도록 리듬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 수업을 듣고 나면 악보 없이도 온몸으로 리듬을 타고 듣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두드림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음악에 다가서고 리듬을 몸에 익히면, 창의적으로 악보를 구성하는 작곡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음악에 접근하는 수업인 셈이죠.

| 오산캠퍼스 |

캠퍼스 색상 [빨강]

오산캠퍼스에서 선정한 빨강은 뜨거운 심장과 정열, 열정, 사랑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활화산, 용광로와 같은 빨강은 젊음의 상징이기도합니다. 오산캠퍼스의 빨강은 사랑과 젊음에 대한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색으로 면적은 작지만, 큰 열정을 가진 오산을 드러내고자하는 색입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오산캠퍼스는 〈특수 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를 통해 시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한 것을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생애사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전시 및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캠퍼스 담당

이숙영 대리(오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특수 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오산캠퍼스는 〈특수 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를 통해 시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한 것을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생애사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전시 및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기간 1기 5월 27일(금) ~ 8월 26일(금), 매주 금요일 / 14:00 ~ 17:00. 12회차
2기 9월 2일(금) ~ 12월 2일(금), 매주 금요일 / 10:00 ~ 13:00. 12회차

교육장소 오산문화재단 다목적실

강사진 윤현식(주), 이하나(주), 신재선(1기 보조), 송애연(2기 보조), 박창훈(보조)

생애사 쓰기 특강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의 책 출간을 위해 참가자들이 수업 시간에 작성해서 제출한 생애사 원고를 교정·교열 및 편집을 진행합니다.

교육기간 1기 8월 12일(금) / 13:00 ~ 16:00
2기 12월 2일(금) / 10:00 ~ 13:00

교육장소 오산문화재단 다목적실

강사진 이하나

과거와 미래의 나를 특수분장으로 만난다!

오산캠퍼스에서 2기에 걸쳐 진행하는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 수업의 첫 6회는 특수분장 편, 다음 6회는 생애사 쓰기 편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만나볼 3번째 수업은 바로 '나의 20대'를 특수분장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산캠퍼스의 특수분장 수업 수강생들에게는 매 시간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현재 상황,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3번째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자신의 20대 혹은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 상황, 모습, 감정, 생각을 자유롭게 준비해 왔는데요. 특수분장 수업은 모두의 20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즐거웠던 과거의 추억, 행복했던 시간이 한가득 떠올랐다면 이제 본격적인 특수분장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강사님이 준비한 지난 기수의 특수분장 활동 영상을 통해 감을 잡은 후, 종이에 메이크업으로 '나의 20대'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수분장 수업인 만큼 단순히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섀도, 립스틱 등 전문가용 화장품 활용한 메이크업 강좌도 이어졌습니다. 현직 메이크업아티스트의 화장법을 전수받은 수강생들의 분장 실력도 일취월장! 처음에는 조금 밋밋했던 메이크업도 점점 자신만의 포인트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모두 다른 얼굴을 그렸음에도 사진을 찍어 보면 자신과 비교적 닮은 얼굴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의 20대를 메이크업으로 완성한 후에는 짧은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연의 감정과 생각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던 만큼,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예술치료'처럼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특수분장을 통해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본 수강생들은 이어지는 생애사 수업에서 미래의 시간을 계획하고 바꾸고 디벨롭하게 됩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2기/8회차) |

오직 하나뿐인 나의 삶, 생애사 쓰기로 기록한다!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 7~12회차에 진행되는 생애사 쓰기는 특수분장으로 이미지화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생애사로 구체화하는 수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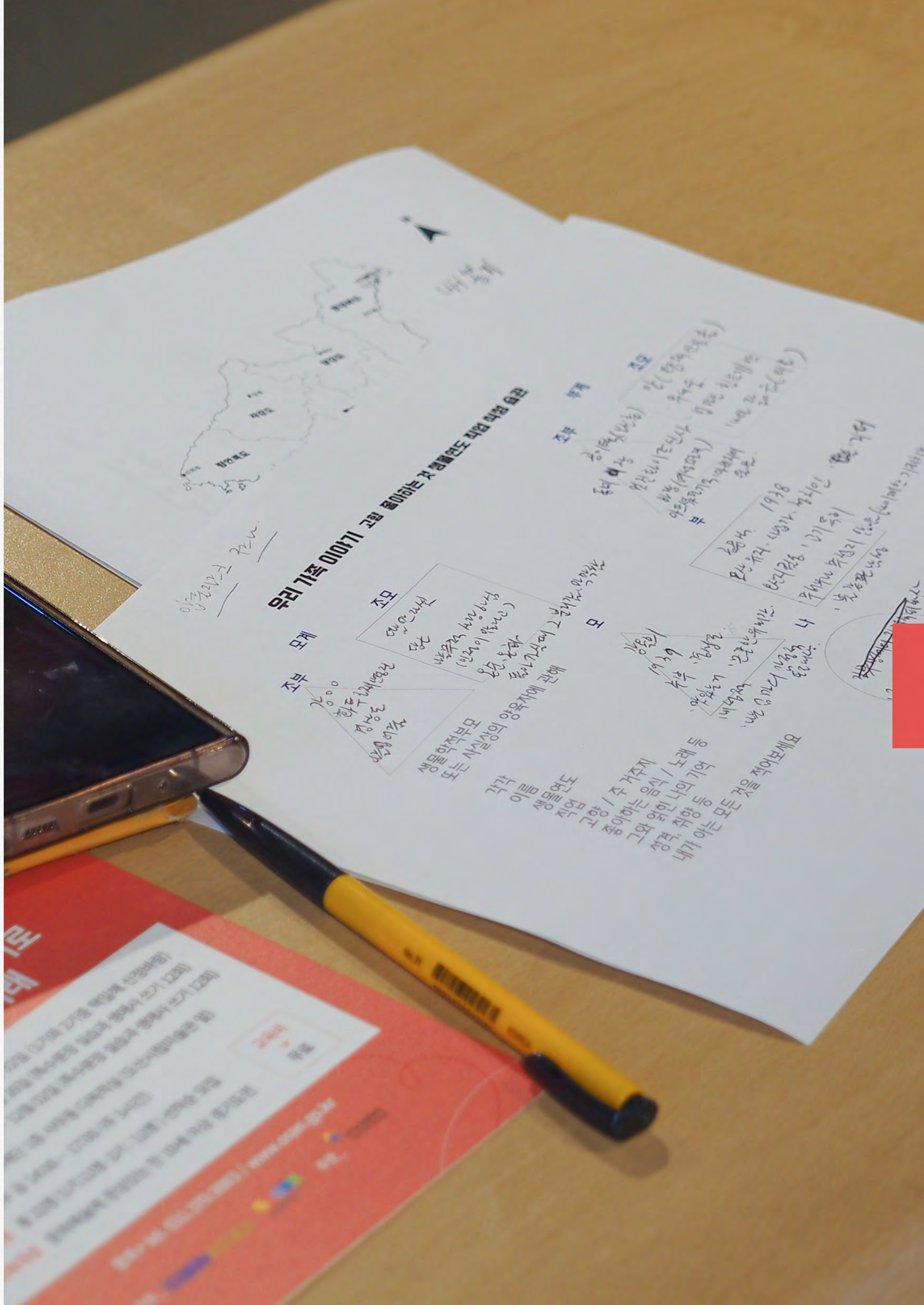
총 6회차로 구성되는 생애사 쓰기의 두 번째 시간, 수강생들에게 '가계도'와 '전국 지도', '연대표'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구성하고 영향을 준 주변의 요소들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수분장 수업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특수분장으로 표현했다면, 생애사 쓰기 수업에서는 주변의 영향까지 더한 광범위한 '나'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가족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에게 가족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업적과 기억, 역사를 생애사로 정리하는 시간은 개개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순서를 알아야 생애사로 정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인생 경로와 연대표는 본격적인 생애사 쓰기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에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 큼지막한 사건을 담은 연대표에 나와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 역시 '그 당시의 나'를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12월에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한 생애사 책을 출간하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를 통해 정리된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변화의 계기를 선사했죠.

특수분장으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생애사 쓰기로 삶을 기록하는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 수업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오며 삶을 긍정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긍정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 특수분장 |

윤현식 메이크업아티스트(강사)

이 프로그램은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이지만,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함께 그려내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그 시간을 토대로 미래에 어떤 시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수업이 시작되면 먼저 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너는 어땠어?'라고 물어봤을 때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 10대는 이랬어'라고 이야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말들이 흘러나와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기억을 긍정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강생 모두가 살아온 시간이 다른 만큼, 이 수업은 절대 정형화될 수가 없어요. 무형 속에서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공감하고 느끼고 그려 나가는, 한 마디로 예술과도 같은 수업이니까요. 이런 시간을 통해 누군가가 가슴 한편에 꿈을 갖고 미소 지으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특수분장과 생애사 쓰기로 만나는 나의 미래: 생애사 쓰기 |

이하나 대표(강사)

특수분장 수업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상했다면, 생애사 쓰기는 이미지로 만들어낸 내면의 이야기를 글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애사는 삶의 주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자서전보다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오산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생애사 쓰기는 내 삶의 사회적 맥락과 시민성을 발견하기 위한 수업인데요. 생애사 쓰기를 통해 나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재화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만큼,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 상흔이 남아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시민성을 회복해야 주체적인 인간이 되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인생의 한계를 제한하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찾고 자기 삶을 재구성하며 아픔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 의정부캠퍼스 |

캠퍼스 색상 [주황]

주황은 시각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며 약동, 활력, 적극성을 표현하는 색상으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경기시민예술학교 의정부캠퍼스가 진행되는 '의정부아트캠프'의 주요 색상이며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의 대표 색상입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의정부캠퍼스의 컨셉은 〈내 안의 예술성을 발견하고 표현하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동안 갇혀있던 내 안의 잠재성과 예술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나조차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꺼내어 발현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담당

안철환 주임(의정부문화재단 공연사업부)

명화 속 자화상

오랜 역사에 걸쳐 존경과 사랑을 받은 작가들이 남긴 명화와 자신을 합성하여 시대를 관통하여 낯설지만 익숙한 자신만의 명화를 탄생시키는 수업입니다.

교육기간 6월 4일(토) ~ 8월 13일(토), 매주 토요일
*6월 25일(토) 휴강
시간/회차 11:00 ~ 13:00, 10회차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오렌지
강사진 나광호(주), 정채원(보조)

아티스트웨이 : 창조성 스트레칭

『아티스트 웨이』 텍스트 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잠재된 창조성을 되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6월 8일(수) ~ 7월 27일(수), 매주 수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8회차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오렌지
강사진 조선영

나의 계절 발명하기

과거의 기억 속 모습과 미래의 나를 관통하여 그려내는 자화상을 통해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언어를 발견하고 글을 써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6월 9일(목) ~ 7월 28일(목), 매주 목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8회차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오렌지
강사진 박시하

나의 감성, 나의 꽃

꽃을 잡는 기초적인 교육부터 다양한 재료 활용뿐만 아니라 미술과 꽃을 접목 시킨 수업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 취미활동을 만드는 플라워 클래스입니다.

교육기간 8월 2일(화) ~ 8월 23일(화), 매주 화요일
게시장소 19:00 ~ 21:00, 4회차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오렌지
강사진 김슬기

나만의 커피 만들기

다양한 종류의 커피 원두와 추출 방법, 좋은 품질의 커피란 무엇인지 이해한 뒤 선호하는 커피 원두와 추출방식 등을 알아가며 개성에 따라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육기간	9월 7일(수) ~ 10월 26일(수), 매주 수요일
시간/회차	19:00 ~ 20:30, 8회차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오렌지
강사진	임성용

나의 뮤즈 : 아이돌 노래에 가사 쓰기

누구나 한번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던 이들을 위해 K-POP 작사가와 함께 자신만의 감성을 꺼내어 보는 작사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9월 3일(토) ~ 11월 12일(토), 매주 토요일 *추석연휴, 10월 1일(토), 10월 29일(토) 휴강
시간/회차	13:00 ~ 15:00, 8회차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오렌지
강사진	봉은영

철.가.방 시즌2 : 철학이 가을을 방문했을 때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관점에 대해 고찰하고 현시대의 삶을 바라보는 강연입니다.

회차	1회차 뇌를 통해 바라보는 미래	회차	2회차 건축은 모두의 미래를 짓는 것
강연일정	10월 13일(목), 19시	강연일정	11월 16일(수), 19시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블랙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블랙
강연자	장동선 박사	강연자	김광현 명예교수(서울대)

가을 담은 비누

다회차 수업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압화 작업을 통해 가을 풍경을 비누에 담아 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11월 18일(금), 11월 19일(토)
시간/회차	11월 18일(금) 10시, 19시 / 11월 19일(토) 10시, 13시 (총 4회차)
교육장소	의정부아트캠프 민트
강사진	박우정

오늘은 내가 명화 속 주인공!

의정부캠퍼스의 〈명화 속 자화상〉 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 명화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는 수업입니다. 명화에 내 사진을 합성한 얼굴을 그리고 색칠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화상을 완성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인데요.

고흐, 프리다 칼로, 베르메르 등 대중적인 명화를 고르고, 여기에 자화상이 될 자신의 얼굴을 합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화 속 주인공의 성별이 바뀌거나 안경이 덧붙여지는 등 변화가 일어나죠. 명화가 수백 년의 시간을 초월해 2022년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은 윤곽을 그려 보는 컨투어 드로잉, 색채 사용과 미술 기법 연습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작품 제작에 돌입합니다. 약 7회에 거쳐 드로잉과 구도, 색채 감각을 익힌 수강생들은 실제 명화를 참고해 거침없이 자화상을 그려 나갔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나광호 강사가 준비한 초상화 작품을 확인하며 자화상에 색을 입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색을 어떻게 오일과 섞어 써야 하는지, 어떤 색을 사용해야 자연스러운지 등 비법도 전수했죠. 피부색에 사용하기 어렵던 보라색과 회색을 섞어서 자화상의 얼굴빛을 살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답니다.

미리 그려둔 윤곽에 맞춰 색을 하나하나 입히다 보면 명화 속 나만의 개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고흐의 자화상 속에서 안경을 쓰거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주인공이 된 얼굴은 내 안의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흰 캔버스를 색으로 채우고 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성만점 자화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강생들이 그린 명화 속 자화상은 의정부아트캠프에 전시되었는데요. 미술에 자신이 없던 수강생들도 전시를 통해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이 있다고요!?

의정부캠퍼스의 〈아티스트 웨이: 창조성 스트레칭〉은 동명의 도서인 『아티스트 웨이』를 기반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창조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강사님이 준비한 창조성 스트레칭 문제에 답하고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주어진 역할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은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진행됩니다. 내면의 창조성을 옭아매고 있던 사슬로부터 자아를 해방하기 위함이죠.

창조성을 자극하기 위해 수강생들은 매일 '모닝 페이지'를 작성하고, '아티스트 데이트'에 참여합니다. 모닝 페이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의식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고, 아티스트 데이트는 내면의 어린 예술가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수업은 창조성과 관련된 아티스트의 인터뷰를 함께 감상하거나 책의 내용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소에 들여다볼 일이 없던 내면을 이야기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공부나 새로운 만남, 나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내면의 어린 예술가와 함께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수업도 빠질 수 없겠죠? 〈아티스트 웨이: 창조성 스트레칭〉 마지막 수업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신의 단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의 단지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과 고민을 던져버릴 수 있는 도구인데요. 수강생 각자의 개성이 듬뿍 담긴 단지는 8월 말 의정부아트캠프 옐로우에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내 안의 창조성 근육을 늘리는 〈아티스트 웨이: 창조성 스트레칭〉 수업. 8회에 걸쳐 창조성을 쭉쭉 늘린 수강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내면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창조적인 예술을 시작해 보는 수업. 오직 〈아티스트 웨이: 창조성 스트레칭〉에서만 가능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화 속 자화상 |

나광호 작가(강사)

일반적으로 '명화'라고 하면 굉장히 우아한 이미지가 강한데요. 〈명화 속 자화상〉은 고흐나 프리다 칼로 등 유명한 명화를 그려 보고 색채 감각을 학습한 후 자기 얼굴을 합성하는 작업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는 수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대를 초월하거나 성별이 바뀌는 등 재미있는 점이 많습니다. 명화의 구도나 색채를 통해 미술의 기본적인 지식을 흡수할 수도 있고요.

수업과 작품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도 무척 뜨거웠습니다. 평소 예술과 거리가 멀었던 수강생이 단톡방에 완성된 작품을 자랑하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후기에 저도 무척 뿌듯했죠.

수강생 중에는 미술 수업을 처음 듣거나 미술에 자신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술에서는 자존감이 무척 중요한데, 망치거나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창의성을 가로막거든요. 이번 수업을 통해 왜곡된 모습을 유니크함으로, 독특한 색감을 개성으로 승화시켜 수강생 모두가 자신만의 특별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아티스트 웨이: 창조성 스트레칭 |

조선영 작가(강사)

누구나 자기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창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창조성을 꺼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아티스트 웨이〉인데요. 아티스트 웨이는 내 안의 창조성을 펼치기 위한 자신감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누구나 창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때 발걸음을 쉽게 떼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하죠.

수업에서는 아티스트 데이트와 모닝 페이지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해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스트레칭이 하면 할수록 느는 것처럼 창작에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죠.

특히 창작을 시작하고 싶지만 머뭇거려지는 분, 자기 검열 성향을 지닌 분께 〈아티스트 웨이: 창조성 스트레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하남캠퍼스 |

캠퍼스 색상 [보라]

보라색은 우아함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열정과 힘이 떠오르는 빨간색을 합친 색으로 진취적인 현재와 미래의 하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캠퍼스 컨셉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하남캠퍼스는 하남시민 및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획 활동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한 〈일상적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인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11종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캠퍼스 담당

정아리아 주임(하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하나의 이야기 : 서로의 만남으로

힘든 나와 너의 이야기를 그림책에 비추어보는 테라피 활동으로 매주 그림책을 읽어보며 나와 너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테라피 노트에 적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5월 17일(화) ~ 6월 14일(화), 매주 화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5회차
교육장소 하남문화재단 강의실
강사진 이세경(주), 조윤아(보조)

못 그려도 괜찮아

그냥 그리면 돼. 못 그려도 괜찮아. 그림을 꼭 잘 그려야 하나요? 못 그려도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5월 18일(수) ~ 6월 15일(수), 매주 수요일
시간/회차 10:30 ~ 12:30, 5회차
교육장소 하남문화재단 강의실
강사진 조윤아(주), 이세경(보조)

도시 밤, 예술 한 잔

제철과일로 와인을 제조합니다. 전통방식을 통해 참여들간의 협업 酒를 제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6월 9일(목) ~ 6월 23일(목), 매주 목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3회차
교육장소 생활문화센터 하다
강사진 김용우

도시 밤, 예술 발효

발효의 미학, 삶의 방식을 발효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발효도 과학입니다.

교육기간 8월 10일(수) ~ 8월 24일(수), 매주 수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3회차
교육장소 생활문화센터 하다
강사진 김용우

도시 향기

나의 퍼스널 향기는? 오감을 통해 향을 도출해내어 조향해봅니다. 나 그리고 우리 집, 도시를 이미지화 하여 조향하는 도시 향기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1기 8월 9일(화) ~ 8월 23일(화), 매주 화요일 / 19:00 ~ 21:00, 3회차
2기 8월 30일(화) ~ 9월 13일(화), 매주 화요일 / 10:30 ~ 12:30, 3회차
교육장소 하남문화재단 강의실
강사진 라문희(주), 김공주(보조)

가을밤 세레나데

내가 듣고 있는 이 노래가 바로 내가 만든 것이라면? 이제는 남이 만든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담긴 내 노래를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내 이야기가 담긴 내 노래를 내 목소리로 만드는 작사, 작곡, 음원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8월 19일(금) ~ 10월 28일(금), 매주 금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10회차
교육장소 하남문화재단 강의실
강사진 소수정(주), 이석희(보조)

나의 時 in

나를 찾는 워크숍을 통해 내면의 아티스트를 만나고 시를 쓰는 창조적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래하듯 시를 읽고, 말하듯 시를 쓰는,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9월 14일(수) ~ 10월 12일(수), 매주 수요일
시간/회차 10:30 ~ 12:30, 5회차
교육장소 하남문화재단 체험실
강사진 강미선(주), 이신유(보조)

동심(童心)산책

놀이하듯 탐험하듯 예술의 요소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내 안의 아티스트 감성을 깨우는 시간, 한 때, 어린아이였던 지금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있을 예술로 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10월 7일(금) ~ 10월 28일(금), 매주 금요일
시간/회차 19:00 ~ 21:00, 4회차
교육장소 하남문화재단 체험실
강사진 김공주(주), 김서아(보조)

특강

배순탁 작가 특강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메인 작가인 배순탁 작가와 함께, 문화를 창조하는 그의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기간 6월 16일(목) / 19:00 ~ 20:30
교육장소 미사도서관

가수 요조 특강 : 눈이 아닌 것으로도 읽는 기분 / 실패를 사랑하는 일

강연을 통해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연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8월 27일(토) / 14:00 ~ 15:30
교육장소 미사도서관

나태주 시인 특강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로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9월 17일(토) / 14:00 ~ 15:30
교육장소 미사도서관

당신은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싶나요?

하남캠퍼스에서 8월부터 9월까지 2기에 걸쳐 진행한 〈도시향기〉 수업은 어디에도 없던 '나'의 향기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향기〉는 '도시의 향기, 공간의 향기, 나의 향기'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되는데요. 1회차에는 하남의 향기, 2회차에는 우리 집의 향기, 이번 3회차에는 '나를 담은 향기'를 만드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향기〉 수업은 조향 전에 나의 이미지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서로의 향기 이미지를 작성하고, 두 가지 심리 테스트를 통해 모호하게 느껴졌던 '나의 향기'의 감을 잡았습니다.

수강생들의 눈앞에는 20여 종의 다채로운 향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향료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모든 향료를 맡아보고 시향지에 숫자로 선호도를 표시합니다. 1~5점까지 선호도를 적고 나면 내 코가 좋아하는 향료 4~5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취향에 맞는 향료를 2가지로 조합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 향수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에 어떤 향료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향료의 양이 달라지는데요. 강사님과 함께 맡아 보며 최적의 향료 조합을 찾아 나갑니다.

조향은 0.1g 단위의 섬세한 계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전자저울을 사용해 한 방울 한 방울 향료를 계량해야 하죠. 계량을 완료한 향수의 향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밀봉하고 라벨을 붙여 줍니다. 라벨에는 내가 직접 지은 향수의 이름, 조향한 날짜, 들어가는 향료 등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완성된 향수를 맞은편에 앉은 파트너와 바꿔서 시향해 보고, 향의 이미지를 글로 표현해 봅니다.

상대방의 향수가 주는 이미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한 편의 시로 적는 등 다양한 향수 소개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매력적인 소개문을 함께 읽어보고 시향하면서 서로가 조합한 향기가 얼마나 다른지도 알 수 있었답니다.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미지메이킹과 감각적인 경험까지, 하남캠퍼스 〈도시향기〉만의 특별함과 다채로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 수업이 아닙니다. 발효 수업입니다!

발효식품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직접 발효식초를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하남캠퍼스의 〈도시 밤, 예술 발효〉입니다. 정석적인 전통 식초는 3개월에서 5년, 10년까지도 숙성 과정을 거치지만, 〈도시 밤, 예술 발효〉 수업에서는 씨앗초를 활용해 약 20일 만에 전통 식초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수업은 먼저 씨앗초를 만들고, 여기에 토마토, 현미를 배합해 술을 빚은 후 여과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빚은 토마토, 현미 술을 여과하고 맛을 본 후 알코올 도수와 총 산도를 측정했는데요. 여과한 술을 각자 집에 가져가서 마저 숙성시키면 비로소 건강한 전통 식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토마토 술과 현미 술을 걸러내고 함께 맛을 봅니다. 술과 식초의 중간 단계에 있는 전통주는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맛을 냅니다. 수강생들이 챙겨온 공병에 술을 나눠 담은 후에는 알코올 도수와 총 산도를 측정하기 위한 '화학 실험'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샘플 측정은 전통 식초가 제대로 완성됐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무척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21도의 술은 곧 순수 알코올 100%인 술이 100mL당 21mL 들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술을 끓여서 발생한 수증기를 식히고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밤, 예술 발효〉 수업에서 만든 술의 알코올 도수는 9.4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화학 실험을 거친 술의 총 산도는 6.24와 6.6인데요. 토마토 술은 집에 가서 마저 발효시키고, 현미 술은 냉장고에 넣고 종초가 완성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함께 만든 전통 식초를 맛볼 생각에 수강생들의 발길도 무척 가벼웠답니다.

〈도시 밤, 예술 발효〉는 프로그램의 제목에 걸맞게 하남의 밤을 독특한 발효의 향기로 장식한 예술적인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본 글은 프로그램 현장 취재 및 참여 후기〈시민봄봄〉의 요약본이며,
원문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향기 |

김공주 티칭아티스트(기획자)

〈도시향기〉는 향수 같은 익숙한 영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1기는 하남의 향기에서 우리 집의 향기, 나의 향기로 좁혀지는 구조였는데 수강생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2기는 반대로 진행했죠.

사실 '하남의 향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농이 복합된 이미지, 남한산성, 은방울꽃 등 하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하남의 맛과 색, 촉감 등 공감각적인 느낌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경험하다 보니 수강생들의 생각이 말랑해지고 더 흥미로운 향기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향기는 감각인 동시에 예술의 영역입니다. 감각으로 섬세하게 느끼다 보면 주변에 관심이 생기고 내 일상에도 즐거움을 주거든요. 특히 〈도시향기〉 수업은 예술의 테두리 안에서 나 자신의 스타일과 취향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예술의 문턱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한다는 경기시민예술학교의 기획 의도와도 일치한다고 봐요.

| 도시 밤, 예술 발효 |

김용우 원장(강사)

〈도시 밤, 예술 발효〉 수업에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식초는 건강에 무척 좋은 발효식품인데, 산업화되어 빠르게 만드는 식초 대신 정성껏 내 손으로 식초를 빚으며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식초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식초의 매력과 발효 문화를 알리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문헌에 나오는 전통 방식으로 식초를 빚고, 기다림과 정성을 통해 사람에 대한 가치와 과정의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지역 재료를 식초에 활용해 도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가치까지도 함께 이해한 것은 물론이고요.

Parfum Extrait
깊은 숲속을 찾아가게 하는 끌리는 매력!!
숲속의 피톤치드가 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결과자료집 |

발행일	2022.12
발행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송창진 지역문화교육본부장
책임	황연정 예술교육팀장
운영	곽지효 예술교육팀, 이다은 예술교육팀
디자인	주식회사 더브랜드웍스
	프로듀서 김창우, 디자이너 정이나, 원고작성 문혜지
교정교열	정이나, 문혜지
주소	(11775)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15 3층
전화	031-231-7200
홈페이지	경기문화재단 ggcf.or.kr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ggarte.ggcf.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gcf_siminedu

본 결과자료집은 2022년도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 운영에 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